

EU 연구혁신 주간 동향 보고

<’26.04.30, 한-EU연구협력센터>

○ 유럽의회, 호라이즌 유럽과 ECF 연계에 대한 대안 제시(4.23)

- 유럽의회는 호라이즌 유럽과 유럽경쟁력기금(ECF) 간 ‘브리지 펀딩(Horizon Europe Pathway Actions)’을 통한 연계를 제안. 연구결과의 상용화, 확장, 라이선싱, 표준화, 적용 등 지식전환 활동을 지원하며, 자금은 ECF가 지원
- 또한 경제·기술자문위원회 등 전문가 중심 거버넌스 구조 도입을 통해 자금의 효과적 배분과 정책 변화 대응성을 강화하려 함

○ EU의 세 주요 정치 기관, 유럽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로드맵 도입에 합의(4.24)

- 집행위, 이사회, 유럽의회는 지도자들이 ERA(유럽단일연구공간)와 AI, 반도체 및 양자 기술 관련 입법 일정을 제시하며 로드맵 도입에 합의
- 집행위는 ‘26년 3분기 ERC 법안 제안 뒤 ‘27년 4분기까지 채택이 목표, 그 이외에도 기술 인력 이동성 강화 정책, 클라우드 및 AI 개발법, AI 기가 팩토리 인프라 구축 계획, 양자기술 법안, 반도체법(Chips Act 2.0) 등 추진 예정

○ EU, 지역 차원의 연구와 혁신 강화를 목표로 한 공동 행동계획 채택(4.27)

- EU 집행위와 유럽지역위원회(CoR)는 지역 차원 연구혁신 강화를 위한 공동 행동계획을 채택하고 4가지 우선순위를 발표(지역 혁신 생태계 강화, 녹색·디지털 전환, EU 자금 접근성 확대, 근거기반 정책 결정 지원)
- 지역과 지방당국이 단순 정책 집행자를 넘어 EU 연구혁신 정책의 공동 설계자로 참여하는 다층적 거버넌스 강화가 특징

○ 집행위, 연구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기울여(4.24)

- 집행위는 연구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표준 연구자 계약 모델 도입 및 학문의 자유 보호를 추진 중임을 밝혔으며, MSCA 선정률 감소에 대응해 박사후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및 비학계 협력 확대 등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

○ (기타) ▲유럽의회, FP10 예산 확보를 위한 본격 협상 준비(4.23) ▲ERC 지원 제한 강화, ‘공정성 훼손’ 논란 이어져(4.23) ▲스위스의 인구 제한 국민투표로 스위스-EU 연구 협력 단절될 위험성 있어(4.23)